宗教改革과 宣教

全 浩 鎭

◇ 目 次 ◇

緖 論
Ⅰ. 宗教改革의 宣教批判者들
Ⅱ. 宗教改革 宣教의 옹호자들
Ⅲ. 칼빈의 宣教論
結 論

緖 論

現代 宣教神學에서 가장 큰 未解決의 문제는 宗教改革者들에게 선교활동과 선교신학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20C초기 宗教改革의 신학, 특히 칼빈의 신학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때 宣教神學도 역시 그때부터 활발하기 시작했다. 현대 宣教神學은 불행히도 칼빈주의자가 아닌 독일 루터교 선교학자 Gustav Warneck이 序幕을 열었다. 그는 그의 저서 *Abriss einer Geschichte der Protestantischen Mission* (改新教 宣教歷史)에서 改革教會는 1) 異方人과 접촉이 없었고 2) 전수교와 투쟁에 몰두했고 3) 非宣教的 神學思想으로 말미암아 宗教改革者들에게는 선교가 결여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 비판을 序頭로 선교적 觀點에서 종교개혁을 否定的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改革派 신학의 豫定論 思想이 늘 오해의 대상이 된 것 같이 改革派神學도 宣教에 장애가 되었다는 날카로운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自由主義 신학자들만이 改革派神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改革主義 教會 내에서도 이 사상에 同調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제부터 改革派神學이 辯護의 신학에서 적극적인 공격의 신학으로 轉向해야 할 때가 왔다. 공격의 신학이 되는 捷徑은 바울使徒와 같이 적극적으로 선교하는데 있다.

Ⅰ. 宗教改革의 宣教批判者들

宗教改革의 宣教不在를 改新教에서 처음으로 지적한자는 사실 Gustav Warneck 이전에 現代宣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William Carey이다. 그는 그의 저서 *An Inquiry into the Obl-*

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 (1792) (異方人 改宗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신자의 義務에 관한 연구)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없이도 적당한 시기에 異方人을 悔改시킨다는 당시 과격 칼빈주의(hyper-Calvinism)를 批判하고 宗教改革 교회는 그동안 天主教의 수도원 같은 선교기관, 즉 수단을 무시했기 때문에 宣教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교적 차원에서 改革主義 신학이 理論的으로 비판을 받은 것은 19C말 Warneck이후이다. 그는 종교개혁자들의 宣教缺如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優先權문제 : 改革者들은 참教理와 行為의 回復이라는 教會의 내부개혁에 집중했다
2) 能力문제 : 改革者들은 天主教 군주들과 투쟁에서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들은 守勢에 있었으므로 宣教師를 派送할 사원이 없었다.
3) 終末論 : 교황과 터키인들은 묵시론적인 인물인 두 형태의 敵그리스도이다. 이들의 叛逆은 新教國과 인접한 지역을 휩쓸고 있다. 우리는 敵그리스도의 悔改를 期待하지 않는다.
4) 終末論 : 마지막이 가까왔다.
5) 聖 史 : 使徒들이 大使命(the Great Commission)을 받아서 이 일을 수행했다. 따라서 教會가 온 세상에 세워졌다.
6) 宗教改革 : 기독교국내의 세례받은 신자들을 복음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이 宣教의 本質이다
7) 이상 같은 이유로 식민주의적 宣教事業은 교황과 수도승들과 스페인이 독점했다
8) 또한 異教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비기독교 이웃이 없다!

바로네의 理論을 토대로하여 예일大學校 교수 라토렛은 몇가지 이유를 더 참가시키면서 바로네에 同調하였다[2] 그는 당시 로마天主教와 비교해 볼 때 改新教가 宣教에 무관심한 것에 크게 실망하여 '16C 로마천주교의 宣教活動의 전성기에 改新教는 구라파외에 信仰을 전파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3]고 비판하였다. 라토렛이 지적한 개혁자들의 宣教缺如를 약술하면 첫째 改革者들은 天主教와의 투쟁에 전념했으며 여러 指導者들간에 투쟁했으며 組職化에 열중했으며, 둘째 終末이 가까왔으며 복음이 온 세상에 이미 퍼졌다고 믿었으며, 세째 改新教성부의 指導者들이 宣教에 무관심했고, 네째 天主教와 같이 선교하는 수도원이 없었으며, 다섯

---

1) John H. Yoder, "Reformation and Missions : Literature Review" *Occasional Bulletin Journal* Vol 22(1971), pp1-2
2) Von Walter Holsten, "Reformation und Mission," *Archiv fur Reformations Geschichte* Vol. 44 (1953), p. 5
3) K. S.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III (Grand Rapids : Zondervan Pub, 1974), p 42

때 改革者들은 비기독교세계와의 접촉이 없었다.[4] 위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라토렛은 改新教宣教缺如의 이유로서 케리와 같이 수단 즉 교회밖의 宣教團體인 소다리티(Sodality)가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천주교의 수도원이 宣教를 한것은 높이 評價해야 하지만 Holsten이 지적한 것 같이 수도원이 선교에 종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禁慾的 선교동기가 크게 작용했다.[5] 그러나 바르넥도 異方人 기독교 교회의 독립과 自我義識을 목표로 노력하는 19C 선교는 종교개혁의 딸임을 인정하였다.

改革者들의 宣教活動 不在는 벌써 宗教改革 당시 로마天主教로 부터 비난 받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宗教改革시대 로마교 추기경 Bellarmine은 다음과 같이 宗教改革을 비판하였다

> 이단자들은 이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은 개종시키지 않고 오히려 신자들만 오도하였다 루터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도와 전도자에 비교한다. 비록 상당한 수의 유대인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에는 터어키인들이 이웃하여 살지만 신교도들은 이들 중 몇몇 사람도 개종시키지 않았다[6]

天主教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新教 日體안에도 비판이 대단히 심각하다. 루터파 신학자 Carl Brateen도 改新教는 宣教思想이 全的으로 缺如되었다고 비판하고, 루터자신도 선도의 大使命을 使徒들에게만 국한 시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宣教의 不在를 초래하며 루터의 終末論思想은 기독교국가 밖으로 宣教를 派送하는 것을 억제시켰다고 한다.[7] W. Kohler도 改革者들과 그들의 교회는 實在的으로 宣教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Kohler에 의하면 루터 칼빈, 부서등은 使徒時代에 벌써 복음이 온세상에 전파되었음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칼빈도 使徒들의 宣教에 대하여 어떻게 순식간에 복음이 東方으로부터 西方의 온 세상에 퍼져서 教會로 자기백성을 모으는가에 대해 감탄했다 했으며 루터도 말하기를 "아프리카에 이미 복음이 興旺했다 그러나 거짓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부패했다 지금은 복음이 애굽, 그리이스, 이태리, 스페인, 불란서로 전파되었다"[8]고 루터의 말을 인용했다 삼리교 신학자 W. R. Hogg도 "기독교 강요"나 칼빈의 註釋에도 적극적인 宣教神學은 없다 쯔빙글리나 부서(Bucer), 존 낙스, 멜랑톤 역시 마찬가지이다 루터의 구원론이나 萬人 祭祀論, 칼빈의 신국확장의 神學이나 선택받은 사람이 人類와 社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神學理論은 분명히 宣教的인 의

---

4) Ibid, pp. 25~28
5) Holsten, loc. cit.,
6)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Grand Rapids Eerdmans, 1965), p 221
7) Brateen, *The Flaming Cent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p 15
8) Kohler, "Reformation and Mission," *Schweizerische Theologie Zeitschrift VOL* 28 (1911) p. 53

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宗教改革者들은 이들 意味를 선교적 의무로 연결시키지를 못하였다. 異教徒들의 改宗을 念願하고, 기독교계 밖의 기독교 신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흔적이 여기 저기 있지만 全般的으로 보아 宗教改革者들에게는 教會의 宣教的 차원에 대한 인식의 흔적은 없다."[9] 고 改新教 宣教神學을 공박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改革派 진영 내에서도 對頭하였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提唱者로 大教會를 이룬 로버트·슐러 목사는 神學在學時節 칼빈의 기독교 강요 index (索引目錄)를 만드는 中에 칼빈의 教會論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局面을 무시했다 즉 信者의 영광스러운 信仰을 그리스도의 기쁨을 모르는 불쌍한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가지는 團體로서의 教會觀이 缺如되었다"[10]고 간증하였다. 기독교개혁파교회 신학자(Christian Reformed Church) Harry Boer도 멜랑톤, 부겐하겐, 쯔윙글리에게는 組職的 宣教프로그램이 없었으며 大使命을 使徒들에게만 국한 시켰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가 결여 되었다고 비판하였다[11] 칼빈신학교 교수 De Ridder도 "宗教改革의 教會觀은 16C 信仰告白과 要理問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教會의 定義를 만족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信仰告白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회의 使命이 무엇인지를 論하지 못했다"[12]고 하면서, 改新教 宣教不在를 말씀, 성례, 권징의 改革主義 教會觀에 돌렸다.

이상에서 宗教改革을 宣教不在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理論을 요약하면, 첫째 당시의 주위환경이 改革者들은 宣教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며, 둘째 大使命을 使徒들에게 국한시켰고, 세째 教會論 자체가 教會의 使命보다 本質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선교가 없으며, 네째 終末思想이 宣教에 장애가 되었다

II 宗教改革 宣教의 옹호자들

改革者들은 宣教不在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정반대의 견해를 제시한 학자들이 있으니 대표적 인물로 K. Holl, W. Elert, E. Pfisterer, 튀빙겐의 Schlatter, 볼트만의 제자 W. Holsten, J. W. Montgomery, C. E. Edwards, 回教國 선교사 S. M. Zwemers, 화란의 Van den Berg, 미국의 Sidney Rooy를 들 수 있다 특히 Van den Berg의 박사학위논문 *Constrained by Jesus' Love*와 Rooy의 *The Theology of Missions in the Puritan Tradition* (清教徒

---

9) Hogg, "선신교의 선교사상," G. E. Anderson편 **선교신학서설** 박근원 역(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75) p 121.

10) Robert H. Schuller, *Your Church Has Real Possibilities*, (Glendale A Division of G. L. Pub, 1974), p. 60.

11) Boer, *Pentecost and Mission*, pp. 22ff.

12) Richard R. De Ridder, *Discipling the N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1), p. 212.

전통에서 宣教神學)은 改革者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宣教했는지를 서술하였다. 하이델벨그대학의 比較宗教學 및 宣教學 교수 D. H. W. Gensichen은 "종교개혁자들을 언급하지 않고는 宣教歷史를 論할 수 없고 또 改革者들의 宣教神學을 언급하지 않고는 宗教改革歷史를 기록할 수 없다[13]고 改革者들의 宣教를 변호 하였다.

이들 변호자들은 改革者들의 神學과 信仰은 宣教의 神學임을 강조하였고 또 改革者들이 스스로 宣教를 실제로 시도 했음을 역설하였다 神學的面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終末때까지 계속 달리고 또 증가하는 것 (runs and increases)을, 칼빈은 信者가 구원의 체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信仰임을 언급하였다 루터는 복음전파를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에 비유하였다 돌이 호수 복판에 떨어지면 그 波長은 중앙에서 부터 호수 끝에 까지 점차로 波長을 일으키듯 복음은 방끝까지 전달된다. 이점에서 루터의 宣教를 변호한 자들은 루터에게서 복음은 인간이란 수단 없이도 本質的으로 확산되는 성격이 있음을 강조한다. Karl Sell은 "初代教會는 과장된 일분과 복음의 自發的인 自我擴大" (die unwillkurlish Selbstaussaat des Evangelums)[14]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한다

노리니티 신학교 교수 H. J. W. Montgomery는 루터의 사상은 18·9C에 와서 해석자들에게서 큰 受難을 당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誤解되었다고 루터를 변호한다 그는 루터신학자 Elert의 말을 인용 "使徒들이 이미 복음을 온세상에 선파했기 때문에 現在教會는 선도의 使命이 없다고 루터의 말한 것으로 주장하는 現代神學者들의 思想은 全的으로 루터와 멘당돈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15]고 하였다. "루터는 그의 宣教와 教訓나 간증에서 深奥한 宣教의 비전을 나타내었다 宗教改革의 組織한 教理的 핵심이 되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의 곡은 선교적 찬송이다"[16] 루터의 宣教哲學은 "나는 믿었다 고로 나는 말했노라"[17]로 집약된다 루터는 구원의 체험과 복음전파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신자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그리고 그를 죄에서 구속하여 그의 구원과 상속에 들어오게 하였음을 알면, 그의 마음속에 철저히 하나님이 임재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 축복에 이르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지식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며, 모

13) Gensichen, "Were the Reformers Idclifferent to Missions?" *Student World* Vol. 53(1960), p. 127

14) Karl Sell, "Der Ursprung der christlichen und der modernen Mission," *Zeitsehs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Vol 6(1895), p. 438

15) "Luther and Missions,"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Vol. 3, No 4 (Summer, 1967), pp. 195~196

16) Ibid, p. 197

17) Ibid., p. 200

든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축복을 사랑하도록 권하며, 은혜에 이르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촉구한다. 자기자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이 쉬지 않는다. 고로 그 사람은 침묵을 지키거나 태만하지 않고 자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인에게 전파하고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노력한다. (WA, 45, 540)[18]

Werner Elert는 "바르넥이 지적한 바와 같이 루터는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宣教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宣教會를 組職하여 Cortez를 멕시코에 보내거나 혹은 宣教學의 전문가로 스스로 自處하기 보다는 오히려 教會改革에 몰두했다"[19]고 바르넥을 비판하면서 루터의 개혁운동자체가 위대한 宣教行為(missionstat)이며 루터의 사상은 宣教思想(missiongedanke)이라고 변호하였다. 이와같이 루터의 변호자들은 루터의 平信徒의 성경, 신자의 萬人 祭祀長원리는 선교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종교개혁 선교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로는 볼트만의 제자 Holsten이다. 그는 改革者들을 現代宣教의 先驅者로 간주한다 현대선교가 종교개혁은 선교가 없다고 비난한다면 현대선교는 종교개혁이 없다고 應答한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

지금까지 종교개혁과 선교의 관계를 연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선교개념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적 선교개념을 유일하고도 참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현대의 선교형태를 표준으로 단정한다. …… 그러나 종교개혁이 현대선교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진다. 현대 선교개념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현대 선교를 논해야 한다.[20]

Holsten의 주장에 의하면 현대선교에는 삼 기독교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인본주의 선교에 불과하다. 루터의 복음에서 우리를 밖의(extra nos) 하나님의 歷史, 外的인 말씀(Verbum externum)과 外的인 稱義(justifia externa)는 現代 복음선포에 결정적인 役割을 한 반면 現代宣教의 능력이 된 敎理는 인간적 경건이다.[21]

---

18) Ibid., pp. 190-200에서 인용
19) *The Structure of Lutheranism*, (St. Louise : Concordia Pub., 1962), p 385
20) Holsten, op cit., pp 1-2
21) Holsten, op. cit., p. 32.

Ⅲ. 칼빈의 宣教論

칼빈의 宣教思想은 긍정과 부정 兩面으로 評價되고 있다. 혹자는 칼빈은 루터와 부서에 비하여 宣教가 약하다고 主張하는 반면 Zwemer는 칼빈의 思想이야 말로 現代宣教의 原泉이 되었다고 주장한다.[22] 칼빈의 사상은 선교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칼빈의 豫定論을 특히 지적한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면 不擇者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反問한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칼빈의 教會論은 교회의 건축이라는 本質에 더 중점을 두었지 教會의 使命을 덜 重視했다고 한다 教會職分에 있어서도 칼빈은 사도와 전도자를 臨時職으로 본 점이다. (강요 Ⅳ, 3 . 4) 이외에도 칼빈은 선교협회(Sodality)를 세우지 않았으며 大使命을 사도들에게만 제한했기 때문에 宣教不在는 事必歸正이라 한다

이상 나섯가지 요인은 宣教에서 늘 不定的 評價를 받아왔다. 칼빈의 宣教論에 가장 정통한 Van den Berg도 칼빈은 선교가 있다고 옹호하면서도 "칼빈은 교회의 宣教的 義務를 완전히 認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23] 그러나 선교에 수동적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다

첫째 칼빈의 신학이 宣教의 신학임을 우리는 認定해야 한다 칼빈주의란 성경의 原理에로 還元을 의미한다 성경의 구원관을 체험한 者는 그 신앙을 "私有化"[24]하지 않고 나누어 가진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890년 암스텔담에서 열린 改革派教會의 첫 선교대회강의에서 교회선교는 칼빈에게서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Berg도 말하기를 칼빈주의 신학과 구원론 사이에 원만한 道化가 있을때 선교활동이 가능하다. 神學論爭에만 힘쓸때 영혼구원의 情熱이 메마르고 구원에만 치우칠때 신비주의로 떨어진다 산 칼빈주의는 선교가 있다[25]고 하였다 사실 "칼빈의 教理는 차겁고 정열없는 道德綱領(moral code)나 추상적 예정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눈라운 신비에 두려워 떠는 것이다"[26] Hans Rudolf Lavater이 잘 지적했듯 칼빈의 말하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27]

칼빈은 복음이 한 구석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온세계에 퍼져야 할 것을 역설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宣教地는 地理的으로 한정되지 않고 온세계가 宣教地였다 칼빈은 온세상 사람이

---

22 Zwemer-I "Calvinism and Missionary Enterprise," *Theology Today* Ⅶ (1950 . pp. 206-216참조 할 것

23) Berg, *Constrained by Jesus Love* (Kampen : J H. kak, 1956), p. 8

24 해방의 신학을 실천하는 현대 급진주의 신학자들은 정통그리스 신앙을 이기적으로 사유화 했다고 공격한다

25) Calvin's Missionary Message Some Romarks about the Relation between Calvinism and Missions," *Evangelical Quaterely* 22 (1956), p. 185

26) Ibid , p. 175

27) "Reformation and Mission," *Reformatia* 25 (1976), p. 243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教會가 기도할 것을 命令했다.[28] 異方의 구원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우리는 우리자신의 구원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知識은 온세상에 나타나야 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고통을 참고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29]

칼빈은 루터와 부서와 마찬가지로 아직 온 異方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의마태복음 주석 24 : 14의 註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멀리있는 백성들을 意識했으며 이사야 45 : 12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擴張되는 것으로 이해했고, 말라기 4 : 3 주석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서 시작되었으니 곧 복음이 온 땅에 퍼진다"고 하였다.[30] 칼빈은 이사야주석 12 : 4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하며, 한번만이 아니라 평생동안 해야한다"고 말했다.

칼빈의 구원론 신학과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은 차거운 思辯哲學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복음전도를 가져온다. 개혁주의를 외치는 일부 教會人들은 칼빈의 신학을 思辯化하는 새로운 Protestant Scholaticism(改新教 合理主義)에 빠졌지만 산 칼빈주의는 신학과 선교의 조화가 있다. 이점에서 George Fry의 말을 인용함이 유익할 것이다.

> 칼빈을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교회행정가, 진지한 교수 및 유능한 저술가로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말틴루터와 요한 웨슬레와 함께 칼빈은 현대 교회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도자이다. 칼빈은 단순히 제네바시를 재종시키거나 불어 사용의 스위스의 한 지방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전도자가 되어 복음주의 신앙을 스코틀랜드에서 트랜실바니아까지 전했다. 이러한 성공은 신학과 전도의 기술적인 통합을 통하여 달성된 것이다. 칼빈이야말로 선도사로서 신학자가 된 우수한 예이다[31]

Fry는 칼빈의 生涯에서 전도와 신학의 관계를 다섯가지로 類推하였다. 첫째 칼빈은 신학과 선도는 因果관계에 있음을 인식했고, 둘째 개인전도가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이며, 세째 教理的 선도가 사회적으로 信者의 적응성있는 사업임을 인식했으며, 네째 教會는 계획성있는

---

28) Ibid., 신명기 33 : 18-19의 설명참조
29) P. D. L. Avis, "The Reformers and Mission," *International Reformed Bulletin* No. 5457 (1974), p 5에서 재인용
30) W. Schlatter, "Calvin and Mission," *Evangelisches Mission-Magazine* 53 (1909), p. 339
31) "John Calvin, Theologian and Evangelist," *Christianity Today* October 23, 1970, p. 3.

전도를 할 것을 역설 했으며, 다섯째 목회전도가 교회의 가장 一貫性있는 사업임을 깨달았다[32] 칼빈의 신학이 변증학(Apologetics)을 발전 시킨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개혁주의는 攻擊의 신학이라기 보다 철학적 論證에 반박하는 변호(Defense)의 신학에 너 몰두해 왔다 그러나 칼빈의 강요는 경신도를 위하여 쓰여진 전도의 책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칼빈주의의 宣教와 豫定論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정론은 선교에 장애가 되었다고 한다. 침례교회의 평신도 청년인 윌리암 케리가 "네 장막터를 넓히라"는 사54 : 2의 말씀으로 世界宣教를 외칠때 豫定論에 철저한 그 교회 장로교 목사가 케리의 정열에 찬물을 부었다 이것은 예정론과 선교가 서로 반대되는 것을 입증하는 예화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豫定論이 전도를 無用之物化 하지 않고 오히려 선택은 전도를 요구한다"[33] 칼빈은 기독교강요 Ⅲ : 23 : 14에서 예정론과 전도의 관계를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분명히 밝혔다 ·

> 우리는 누가 예정의 수효안에 속하는가, 혹은 속하지 않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경안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34]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豫定論 教理를 주장하는 자들이 宣教에 열심이 있었다. 어거스틴 부서, 케리, 카이퍼등은 대표적 例이다 특히 케리도 하나님의 자유롭고도 主權的인 은혜를 변호하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정열적이었음은 참 감탄할 일이라고 하였다[35] 알미니안主義에 대항하여 作成된 칼빈주의的인 돌트신조 제 1 장은 예정론으로 시작한다 이신조는 예정론이 결코 선교를 排除하지 않는다고 못박음으로 다른 신조보다 선교사상을 함축하였다.

> 사람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자비로 그가 원하시는 가장 기쁜 소식의 전달자들을 원하는 시간에 파송하신다 따라서 이들의 전도로 사람들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고 받는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

32) Ibid, pp 4-6
33) R. B. Kuiper, *God Centered Evangelism*,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1), p. 38
34) 칼빈, 기독교 강요 Ⅲ, 23 14, 김문제 역(서울 세종문화사, 1976), p 716
35) Berg, "Calvin's Missionary Message ," p. 180

칼빈의 敎會論은 선교가 약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 같이 칼빈의 敎會論은 부패한 교회의 改革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敎會의 使命보다 敎會의 本質에 더 치중하였다. 改革主義신앙의 일부 학자들은 말씀, 권징, 성례의 敎會論에는 선교가 排除되었다고 주장한다. 宣敎的 敎會觀이라기 보다 戰鬪的 敎會觀(militant church)이 특징이나 그러나 칼빈의 敎會論은 선교를 선혀 배제하지 않는다. T. F. Torrance는 칼빈의 敎會觀은 設立(aedificatıcn), 發展(profectus), 成長(incrementa)임으로 宣敎가 可能하다고 한다.[36] 칼빈의 선교사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Regum Christ(그리스도의 나라)와 神國觀念에서 始作하였다. 따라서 칼빈에게서 敎會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장되는 것이다.

칼빈은 선교의 수단으로서 Sodalıty, 즉 敎會밖의 自發的인 宣敎團體(Voluntary Societies)를 認定하지 않았기 때문에 宣敎不在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한다. 16·7C에 로마天主敎는 수도원같은 Sodalıty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活發했으나 modality(制度的 敎會)만을 강조하는 改革敎會가 선교가 없었다고 Ralph Winter와 Latourette이 지적한다. 칼빈은 宣敎보다 참 교회건설이 더 시급했다. 따라서 1000년 간의 흑암의 소굴이 되었든 수도원을 강도의 굴로 간주했다. 이러한 그의 思想이 Sodality를 容認할 리 없다. 칼빈은 수도원을 가리켜 "정결한 기도실이어야 마땅할 그 것이 매춘굴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날수 있는 것이 모두 몇개나 될까?"(강요 Ⅳ, 13 : 15)하고 난식했으며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 "수도원에서 수도를 쌓은 사람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났던 일은 없다"고 함과 동시에 "수도원에서 타락한 사람 이상으로 악한 인간을 만난 일도 없다"(강요Ⅳ, 13 : 15)고 하였다. 칼빈은 수도원이 宣敎한 것은 성경이 금지한 禁慾的인 서원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칼빈과 그의 후예들은 선교를 Sodality가 아닌 modality에 돌렸다. 또한 使徒職을 특수직으로 본 것은 로마교의 使徒 繼承權을 否定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강요Ⅳ, 3 : 4에서 使徒繼承權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칼빈에게 宣敎活動이 없었다는 주장은 可能하나 宣敎神學이 없다고 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Van den Berg는 力說한다. 勿論 당시의 상황이 改革者들이 海外로 선교사를 派送하는 선교활동은 天主敎만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 宣敎는 敎育을 通하여 구라파에 선교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派送이란 意味의 선교활동이 있으니 곧 1555년 유그노파 신자 해군장교 Gaspard de Coligny의 후원아래 Nicolas Durand de Vilegagnon이 수행자 몇명을 브라질에 파송했다. 여기에 대해 Baez-Camargo의 "The Earliest Protestant Missionary Venture in Latin America"와 Schlatter의 "Calvin und Mission"이 비교적 상세히 狀況을 소개해 준

36) *Kingdom and Church* (London : Essentibl Book 1956), p 96

다. 이들은 리오데자네이로에 도착 즉시 Coligny와 Calvin에게 牧師와 신자를 더 파송할 것을 요청함으로 Calvin은 요구대로 파송했으나 Villegagnon은 로마교로 도리어 복귀하고 나머지 一行을 驅逐시켰다 그중 Lery란 자가 九死一生으로 귀환하여 神學을 하여 改革教會의 목사가 되었는데 후일 그는 브라질航海史(Historie d'um vogage fact dans le pays du Bresil)를 저술했다[37] 만약 이들의 선교가 成功 했다면 브라질은 改新教가 基盤을 삽았을지 모른다.

改革者들은 積極的인 海外派送의 宣教는 칼빈과 루터의 경우 극히 制限된 것은 事實이다 이것은 우선 당시 政治指導者들의 후원이 필요한데 개혁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없었고, 또한 당시 식민지는 天主教의 支配勢力인 스페인과 포루갈이 地球를 半分하였다 Luther는 터키 회교도들의 侵入을 알았지만 그는 터어키인들을 적시록의 곡과 마곡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宣教를 포기한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38] 그는 사탄의 悔改를 원치 않았다. 베자는 使徒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심지어 아메리카에 까지 전했다고 주장한 最初의 改革派 神學者이다[39]

結　　論

宗教改革의 神學은 宣教神學과 宣教活動이 不在라는 비판은 一部 神學的, 信仰的 偏見이 介在되었다. 現代改革神學은 守勢에 있으며 信仰形態도 新오순절운동(Neo-Pentecostalism)의 영향으로 傳統的 信仰은 위협을 당하고 있다 現代의 神學思潮와 信仰은 宗教改革의 傳統에 否定的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루터의 종말론 사상과 칼빈의 豫定論은 宣教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全的으로 誤解임이 歷史的으로 證明된다 그 理由는 종말론 사상은 선교에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제가 되었다 Karl Sell도 "멸한 世界의 종말을 기다린 종말론 사상은 선교부재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使徒時代에도 이 思想이 이미 보편화 되었기 때문이다"[40]라고 했다 Kohler이 지적한것 같이 "敬虔主義를 通한 宣教의 復興은 오히려 강력한 종말론적 신앙에서 생겨났다. 따라서 再臨期待와 宣教는 서로 反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필연관계에 있다"[41] 칼빈의 豫定論을 믿는 신자들이 미국, 인디안 선교에 앞장을 섰다는 점에서 豫定論도 장애가 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오히려 宗教改革의 神學은 現代宣教의 神學과 信仰面에서 礎石을 제공했다 宗教改革에 宣

---

37) Baez-Camargo, op cit., p 141
38) Kohler, op cit., p 51
39) Berg, "Calvin's Missionary Message ", p 179
40) op cit, p 138
41) op cit, p. 52

教가 없다고 처음 주장한 Warneck도 改新教는 宣教는 하지 아니했으나 宣教메시지의 內容을 다시 밝혀 주었고 萬人祭祀長 원리는 선교에서 平信徒運動을 일으킨 원동력이라고 하였다.[42] 바르넥은 "결론으로 우리들의 선교는 宗教改革의 딸"이라고[43] 하였다. 칼빈의 神學도 現代宣教에 神學을 提供하였다. 現代宣教는 proclamation(宣布), persvasion(說得), presence(現存)으로 分類되는데 改革主義 宣教 神學은 칼빈의 원리를 따라 proclamation을 주장하며 강요Ⅱ, Ⅰ, 3 : 1-2의 Imago Dei로서 인간이 神을 찾는 本能이 있음을 강조한 칼빈의 理論은 J. H. Bavinck로 하여금 Elenctics를 발전시키게 했다.

改革者들이 선교에 적극적 관심을 표시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당시의 자기들의 使命이 宣教보다 참 教會선설에 있었으며 異教徒와의 접촉이 없었다. 그러나 Stephen Neill이 지적한 대로 "그들은 신학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용히 기다리기 보다 어디서나 존경할 만 하지만 맹목적이고도 무례한 정열로 끝없는 분열과 논쟁에 정력을 낭비한 것이"[44] 큰 흠이라고 할 수 있다. 改新教 宣教不在는 어떤 점에서 그 후손들의 責任으로 돌려야 한다. 宗教改革의 후손들은 영적생명을 상실하여 경건주의를 낳게 했으며 지나친 教理論爭으로 소위 Protestant Scholaticism(改新教 合理主義)에 빠졌으며, 非本質的인 것에 집착, 경건을 몇개의 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낙화시켰으며, 信仰의 內面化에 失敗했다. 지금도 미국 개혁파교회 내에서 일어난 普通恩惠(Common Grace)의 論爭은 宣教를 弱化시킬 우려가 있다. 그 實例로 H. Hocksema와 K. Schilder의 보통은혜의 부정은 과격 칼빈주의의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선교부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Hoeksema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개념은 비성경적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복음전파는 遺棄者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의도하시지 않았다."[45]고 함으로 전도의 중요성을 부정하였다. 이제 개혁주의 교회는 건전한 神學과 불타는 信仰의 情熱과 使命感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世界宣教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本 論文은 1979學年度 二學期 開講 學述論文 發表임).

42) "Reformation and Heiden Mission" pp. 434ff.
43) Ibid, p. 439
44) Ibid, p. 220
45) A. C. De Jong, *The Well-Meant Gospel Offer*, (Franeka : T. Wever, 1954), p. 49.